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9~14

2022년 4월 10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우리는 올해 New City Catechism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귀하의 게시판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15문: 율법은 아무나 지킬 수 없으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뜻과 우리 마음의 죄성과 불순종을 알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가 구주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권고합니다.

오늘의 성경 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8:9-14

9 이에 예수께서 자기 의를 크게 믿으며 다른 모든 사람을 비웃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멸시받는 세리라

- 11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며 내가 다른 사람 곧 속이는 자, 죄인,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확실히 그 세금 징수원과 같지 않습니다!
-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 13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할 때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나는 죄인이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라
-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죄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보내어 저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진리에 열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26살 때로 기억합니다. 누군가 미국 상원의원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주선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나는 그녀에게 직업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나는 언젠가 미국 상원의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와, 그 직업에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저의 가장 큰 매력은 겸손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겸손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일종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예수님은 약간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기도할 때 자신의 겸손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겸손으로 기도하였습니까? 기필코 아니다. 저와 함께 9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9

9 “예수께서 자기 의를 크게 믿으며 모든 사람을 비웃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중을 인식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전문가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매우 주의 깊게 순종했습니다. 그

들은 지역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릇된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자주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경멸"하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훈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1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10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멸시받는 세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 세워져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은 종교와 사회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 그곳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나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8일 이내에 미국에서 세금 신고가 마감됩니다. 세금 정보를 국세청에 보냅니다. 국세청. IRS의 남녀들은 여기서 동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워싱턴 DC에서 일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무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IRS에 대해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나 IRS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국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로마는 침략자였다. 로마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제했고 로마 제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 징수원은 유대인 이웃에게서 세금을 징수한 유대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세금을 로마에 바쳤고 일부는 자신들을 위해 보관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세금 징수원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가 되고 원수를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병환자, 눈먼 사람, 모든 종류의 죄인의 상함을 통해 공훈과 자비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이나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아니지. 예수님은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 그를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18:11-12

11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속이는 자들과 죄인들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결코 그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십분의 일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설교 후에 함께 하게 될 이 다윗의 기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 하나님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16 당신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칠 것입니다. 당신은 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17 당신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여,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룩한 삶을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올바르게 귀를 기울인다면 항상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 말씀하신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영웅이다. 길에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두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 비유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사마리아인 의상을 입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다. 더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노력해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영웅이십니다. 우리는 길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그는 진실의 화살을 쏘고 있다. 이 화살은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겨냥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제거해야 할 교만과 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예수님은 문제를 직시하시고 사랑으로 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금 징수원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세금 징수원 의상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요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를 칭찬해 주시도록 더 세리처럼 살며 기도하겠습니다!” 친구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화살을 당신의 심장에 똑바로 겨누고 있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에게 총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에게 총을 쏘고 있다. 그는 당신과 나를 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 비유를 이해하고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 의상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과 죄에 화살을 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군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종종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내려다 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자주 알잡아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리새인. 아이러니하죠?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신학과 지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나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내가 이 비유를 읽을 때, 나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남을 알잡아 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알잡아 보는 것이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똑같다. 당신은 어때요? 누구를 알잡아 보십니까? 당신의 자존심과 명성을 높이려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비판합니까?

여기 내가 당신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하게 보이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승인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화살로 쏘시는 교만의 태도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교만과 죄를 향해 예수님이 화살을 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께서 마음에 있는 교만과 죄를 나타내시도록 허락하면 비유에서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겸손과 자비의 교훈.

누가복음 18:13

13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할 때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여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나는 죄인이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라 ”

세리는 기도할 때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를 무엇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입니다. 오늘의 교리 문답은 15번입니다.

”율법은 능히 지킬 자가 없나니 그 목적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뜻과 우리 마음의 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평판을 높이려고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법자이며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금 징수원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 육체적인 일을 합니다. 그는 멀리 서 있다. 그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는 땅을 내려다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가 거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로 하는 일은 가슴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정죄,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에스라 9:5-6에 나오는 제사장 에스라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5 제사를 드릴 때에 옷이 찢겨 애통하여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었습니다. 6 내가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심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어 주를 향하지 못하옵나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더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달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에는 거창한 말이나 정교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도에는 신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는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런 비자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겸손 비자가 필요합니다. 겸손은 여권에 찍힌 비자 스탬프와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이미 왕국의 시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무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에만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18:14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죄인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자기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금 징수원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한 작은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겸손한 태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예수 생애의 마지막 주를 기억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의 겸손과 순종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에 관한 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왕처럼 도착했지만 매우 다른 종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병거나 금도금 수레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4-5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 "이는 말씀하신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5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를 탔다 하라 하라" "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엄격한 종교적 순종에 감명을 받지 않으신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명성과 순종 위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의 순종 위에 세우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에게는 숨겨진 죄가 많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눈에 보이는 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셨고 그 때문에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죄인임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죄인임을 밝히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볼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예루살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욕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을 통해 지고 가셔서 그의 사랑과 겸손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무덤에 내려가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고 하늘에 있는 그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겸손한 기도와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죽어야 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비와 용서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만심과 자립심을 보여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구주 예수와 함께 우리를 높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Voice Fellowship